

## “중간인” 비로소 보여지다

글. 문영민 작가 · 예술비평가

1982년 무렵 나는 서울에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키가 작고 왜소한 30대 초반의 영어 선생은 일본을 방문중인 한 미국 정치인에 대한 농담을 던졌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일본인 기자들이 묻기를, “미국에서는 선거를 얼마나 자주 하나요?” 그러자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오, 매일 하죠!” 선생의 설명에 의하면, 그 정치인은 기자들이 ‘선거(일렉션election)’가 아니라 ‘발기(이렉션erection)’에 대해서 물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아무도 이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지 않았고, 교실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다.

돌이켜보면 학교라는 맥락에서 이 농담의 저속함과 부적절함은 차치하더라도, 그것은 한국군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을 드러내는 농담이었다. 선생은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R’발음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서 알파벳 ‘L’과 ‘R’발음의 차이를 보여주려는 의도였지만, 자신에게 내면화된 군사화 심리가 작동 중인 것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선생은 그 농담을 일본인 기자들이 프로이트적 말실수를 저지른 사례로서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아마도 어설피다고 여겨지는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 실력을 비웃으려 했던 것 같다. 일본은 한국을 거의 40년 동안 지배한 식민주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 농담에는 분명 반일본 정서가 깔렸다는 점이 확실해 보였다. 또한 미국 정치인이 공개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정력에 대해 이야기할 만큼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묘사된 점 또한 흥미로웠다. 그 농담은 일본 기자들이 미국 정치인의 답변에 당황하거나 그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게 되면 마치 거세라도 당한 것처럼 음경선망penis-envy 상태로 격하될 거라는 점을 암시했다. 이런 점에서 그 농담은 미국이 일본인을 업신여긴 역사, 특히 히로시마 폭격의 작전명인 ‘리틀 보이’에서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상징하는데, ‘리틀 보이’라는 작전명은 일본인 남성의 남성성을 앞잡아보는 미국의 태도를 대표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그 농담에서 결정적이었던 건 바로 그걸 말한 사람이 한국인이었고, 그가 의무복무를 마쳤으며 정력이 넘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인들과 자신을 연결 지었다는 점이다.

군사정권 치하에서는 공립 남학교에 있는 많은 교사들이 습관적으로 폭력을 사용했다. 그들은 학생들을 체벌할 때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는데, 폭력을 일종의 공적인 의식이자 교육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교사는 극소수에 불과했는데, 폭력이나 폭언을 하지 않는 화학 선생 한 분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영어 선생이 또렷하게 기억나는 이유는 그가 잔혹한 폭력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따금 분노를 폭발시켜 학생들에게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온함과 긴장감 사이를 오가곤 했고, 가끔은 갑자기 화를 내며 학생들에게 분필 조각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때로는 뒤틀린 유머감각을 드러내곤 했으며, 그는 앞서 언급한 농담에서 자기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받았던 요구를 은연중에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남자다울 것, 힘이 넘칠 것, 정력적일 것,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국가를 위해 사용할 것을 말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농담은 그가 군복무를 하는 동안 마음속에 품게 된 군에 대한 반항적이고 반체제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건 간에, 그 농담은 군대라는 조직적 폭력에 매일 노출되는 일을 견딜 만큼 남자답고 강인함을 강요당한 것에 대한 불안과 좌절, 공포가 내면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가 표출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그는 군에서 제대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폭력에 대한 외상, 즉 트라우마를 소화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학창시절의 경험에 대해 자세히 쓰는 이유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군대에 대해 논하려 한다거나, 내가 군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겪는 폭력과 공립학교에서 겪는 폭력을 바꿔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군사정권하의 한국 사회에 폭력이 만연했다는 것을 확실히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폭력이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학교는 군대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군대를 준비하는 기반이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사실 고등학교에서 받은 군사교육은 꽤 이른 시기부터 반복적으로 젊은이들의 정신과 신체에 대한 규율과 감시로서 주입되었다. 당시 계속되고 있었던 냉전논리는 국가와 그 피고용인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을 동원하고 군사화된 애국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영어 선생의 농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뇌리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그 농담은 나라 전체가 일본 식민지 세력에 굴복하는 굴욕적인 과정과 그에 뒤따른 미군의 지배, 한국 전쟁, 북한의 공산화 위협이라는 복잡한 역사적 과정에 한국군이 연여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일본군 장교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식민지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인종차별과 더불어 잔혹한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일본제국군으로 훈련 받았던 군사 독재자 박정희와 그의 후계자들은 일본인들에게서 가혹한 신체적 처벌을 물려받았다. 식민주의의 잔재에 대한 논쟁들이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군에서 상관이 부하를 다루는 방식은 아직도 일본 식민지 시절의 인종차별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을 따른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기까지 하다. 사실 그 농담은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 제국주의의 악명 높은 잔재들을 융합시켜 잘 보여준다. 대규모의 인구를 전멸시켜 일본의 남성성을 상징적으로 제거해버린 행위는 아직도 한국인들의 심리를 뒤덮고 있는 미국의 지배적인 남성성과 함께 겹쳐진다. 미국에게 남한이 실질적으로 반식민지나 다름없다는 사실은 영어 선생이 자기도 모르게 미국인의 남성성에 대해서 보여준 선망에 의해 입증된다. 이를테면 미국 남성들의 정력은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암시되는 것이다.

오형근의 새 작업 <중간인Middlemen>에서는 군인들의 얼굴에서 불안감을 드러내는 미묘한 흔적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는 식민지 지배와 수십 년 간의 군사 정권으로부터 비롯된 외상의 유산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오형근이 찍은 사진들은 그 어떤 폭력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의 사진들은 오히려 폭력을 예감하고 그것을 극복하려 애쓰는 군인들의 집단적인 외상을 나타낸다. 오형근의 연작이 지니는 또 다른 중대한 점은, 예상치 못한 종류의 모호한 불안감을 군인들의 모습에서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젊은 군인들이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 오늘의 군사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